

일주문

“다문화 사회일수록 수행종교 선호”

국제포교사회초청 강연 G. 라이얼 호주불교협회 고문

13일 악사대불전 낙성범회 운산 포항 도선사 주지는 13일 오전 10시 일본 고승들을 초청한 가운데 악사대불전 낙성대법회와 영가천도재를 봉행한다.

어린이회 23주년 법회 지흥 조계사 주지는 1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 1층에서 어린이회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자비심행회 사무실이전 법문 현장 보성 대원사 주지는 14일 광주 동구 내남동 299-1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한 자비심행회의 개원법회에서 법문한다.

9·11시대 1돌기념 포럼 진월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는 11일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UFD 시각에서 본 9·11시대 주제 포럼을 갖는다.

청학스님 친견법회 봉행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8월 26일 고승친견법회 일환으로 신도회 간부들과 성통사 조실 청학스님을 친견했다.

제3대 회장 선출 총회 백원기 국제포교사회장은 제3대 회장선거를 위한 총회를 24일 조계사 불교대학 제 1강의실에서 연다.

연 소재 개인전시회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은 7일까지 경기대 소성미술관에서 연(展) 소재 유화 디자인 작품 개인전시회를 열었다.

동국대 교수회장에 재임 박중훈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는 8월 27일 열린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재임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에 서정규 고려대 불교문화연구소(주) 서울교육센터장은 1일 고려대장경연구소 신입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법산스님(경각원장) △대학원장=임기중 △경주 삼경대학장=임배근 △경주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조영석 △경주 의학연구소장=임현술

인사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혼재하는 다문화 사회일수록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수행종교를 선호한다.”

호주 불교협회 고문 그레이 라이얼(Graeme Lyall, 72·사진)은 8월 31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외국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주최의 강연회에서 “가족애와 이웃에 대한 배려 등 불교적 가치로서 얼마든지 자비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서구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라이얼 고문은 “호주에서는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3배 가량 불교신자가 늘었으며, 지난해 호주연방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9%인 36만여 명이 불교를 믿어 호주 내에서 제 2위의 종교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사회의 불교 역할에 대해 “불교는 자신만의 수행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구제와 병약 및 학교의 건립, 불의에 대한 항거와 인권 옹호 등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불교가 지나친 서구중심 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한국불교는 물론 대승불교권 전체가 언어문제로 남북불교권보다 포교에 뒤지고 있어 스님들도 이제는 포교와 세계화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30여 년 전부터 송산스님이 유럽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대승불교를 유럽에 뒤통에 전했지만, 남북불교에 젖어있는 서구인들에게 탁월한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와 담양 죽림정사(주지 종현) 초청으로 방한한 라이얼 고문은 호주불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집행위원과 세계 불교도우의회 집행위원, 뉴사우스웨일스 및 퀸스랜드 정토불교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외국스님들이 호주에 정착해 포교하는 일을 적극 돕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호주에서 불교 제2위 종교로 성장

“단원들과 마음 맞춰 ‘신식염불’”

광주사암연합 합창단 이숙희 회장

지역 사암연합회가 합창단을 가동하고 있는 유일한 곳 ‘광주사암연합합창단’의 이숙희 회장(묘각행·53·사진)은 올해로 꼭 10번째 합창단을 지원해 왔다. 재적사찰이 광주 용화정사인이 회장은 매주 화요일이면 광주 불교방송 2층에서 단원들과 함께 찬불가 합창 연습을 한다. 또 소책자 악보를 만들어 이웃에 찬불가를 전하며 음악포교사를 자처하는 이 회장은 찬불가를 ‘신식 염불’이라고 부른다.

20개 가까운 다양한 사찰의 신도 45명이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말 그대로 화음도 맞춰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맞추는 일. “부처님 일이라 사실 특별하게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찬불 공양을 발원한 보살들이니 절로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회장으로서 단원들에게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주문은 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실천을 하나 더 하는



불자라는 위치를 자각해서 행동을 보여주자고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 회장은 언행에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합창단 운영에 급급해 법회에 음성공양을 올리는 역할에 머물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이제는 내부적 결속력은 물론 대외적으로 지역사회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어렵고 어두운 이웃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활동을 벌이려고 한다. 그동안 가장 큰 보람은 스님들께서 격려해주실 때라는 그의 가장 큰 후원자는 남편과 자식이라고. 주유직 광주지사장

“1인 1수행 1봉사 적극 실천”

영남불교대 동문회 배선헤 신임회장



“부처님 정법이 널리 퍼지고 영남불교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7일, 영남불교대학 동문회 6대 회장에 취임한 배선헤(자인성·사진) 회장은 5만여 동문의 대표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현재 71기까지 동문들의 힘을 결집시켜 학장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복지관 등 여러 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회장은 또 “불교공부를 하는 목적과 방향은 부처님 법을 배워 봉사와 수행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라는 우학스님의 말씀이 가슴

“아프간 난민촌 지원사업 착수”

법륜스님 16일 현지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사진)이 막사이사이상 재단으로부터 받은 상금 5만 달러를 대북지원 민간단체 3-4곳에 기부할 뜻을 피력했다. 법륜스님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는 아시아 분쟁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눈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륜스님은 우선 아프가니스탄 카불 근교 등 3-4곳의 난민촌에 활동가들을 보내 어린이 영양공급 및 교육지원 등 난민 정착지원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16일부터 7박8일간 아프가니스탄 현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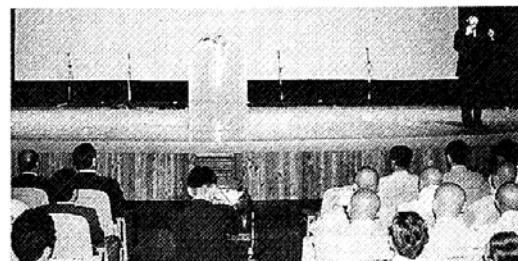
봉선사 교양대학 제25기 입학식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민)는 3일 제25기 교양대 입학식을 개최했다. 연수원장 무척스님을 비롯 사중 스님들과 50여 신입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입학식에서 총무 여산 스님은 “끝까지 공부해 졸업하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만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몫을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삼장불학원 수료식 및 입학식

나란다 삼장불학원(원장 활안, 금강선원 이사장은 2일 사미과 제 1기 수료식과 사집과 제1기, 사미과 제2기 입학식을 거행했다. 금강선원 큰 법당에서 개최된 수료식에서는 윤창남 1기 회장을 비롯 총 23명이 수료했다. 활안 원장은 “재가불자로서 출가수행자로서 초발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주장애인복지관 1돌 기념식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8월 28일 영주시민회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관장 지현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심진 스님과 하유스님의 법고공연, 복지관 수화교실 모임 ‘손으로 여는 세상’의 수화공연, 복지관재활사업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등이 펼쳐졌다.



금정불교대 자연환경 정화활동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공영석)에서는 8월 25일 범어사 일원 숲속 및 계곡에서 금정산 북문 일원까지 자연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범어사 주변을 정화하고자 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 50여명이 참석,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유리병, 플라스틱 등 오물 및 쓰레기 20마대 분을 수거했다. 박원구 기자

마음 밝히는 참선 도량



공생선원

공생선원 9월 8일 문을 엽니다

우리는 공생공생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주와 내가, 지연과 내가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체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함을 알면 세상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알고, 세상과 함께 사는 소중함을 깨닫고자 참선 수행함이 바로 공생선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공생선원에서 참선을 하면 본래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마음을 되찾는 지름길인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더불어서 자기를 믿고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좌 개설 | 참선반, 참선 입문반, 경전반, 기본교육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전화 900-2448